

**2018학년도 부산대학교 대학입학전형 대비
모의논술고사(인문·사회계) 문제지**

지원학과(학부)		수험번호	성명
----------	--	------	----

【유의 사항】

1. 시험 시간은 100분입니다.
2. 답안은 답안지의 해당 문제 번호에 연필 또는 샤프로 작성하시오.
3. 답안을 수정할 때는 지우개를 사용하시오.
4. 제목을 쓰지 말고 본문부터 시작하시오.
5. 학교명, 성명 등 자신의 신상에 관련된 사항은 답안에 드러내지 마시오.
6. 답안 연습은 연습지를 활용하시오.
7. 답안지, 연습지 및 문제지에 필요한 인적 사항을 기입하였는지 확인하시오.

【문제 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신중국은 사회주의 건설 노선에 따라 **베이징**을 직장과 주거지가 통합된 단위 조직으로 재편성했다. 작은 골목을 뜻하는 후통(胡同)은 쇠락하고, 그 대신 높은 벽 너머로 조성된 중국 특색의 커뮤니티인 ‘다위안(大院)’이 들어섰다. 당, 정부, 군 소속의 각종 지휘 기관이나 대학, 연구소, 병원, 국유기업 같은 기관들은 자신만의 다위안을 만들었다. 각 다위안 안에는 수천 명에서 수만 명에 이르는 구성원들이 거주했다. …(중략)… 베이징은 단순한 관광도시가 아니다. 권력과 모략이 넘실거리는 권모술수의 요람이다. 한국인들은 ‘중양’ 하면 좌우의 중심으로 생각한다. 중국인들에게 ‘중양’은 지방 위에 군림하는 권력의 중심을 뜻한다. 세계 중앙의 나라 중국의 수도 베이징은 권위주의와 경제발전을 결합한 성장 모델인 베이징 컨센서스의 본산이 됐다. 베이징 사람만이 중국의 표준어로 인정되는 말을 할 수 있고, 황제의 황궁과 제단을 공원으로 삼을 수 있다. …(중략)… 세계의 중심으로 비약하는 베이징 여행의 묘미는 중국식 권력과 정치의 향내를 얼마나 맡느냐에 달려 있다.

(나) 20세기의 문을 연 건축은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입니다. 이 성당은 바르셀로나 올림픽으로 인해 다들 잘 아시는 안토니오 가우디(1852-1926)의 작품입니다. 쾰른 대성당을 연상시키기는 하지만 20세기의 새로운 문명이 없었다면 세울 수 없었던 건축물입니다. 20세기 초에 착공해 현재까지 짓고 있습니다. …(중략)… 평생을 건축에 헌신한 가우디는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 건설 현장에 갔다 오는 길에 전차에 치어 죽었습니다. 게다가 워낙 검소했기 때문에 누군지 몰라본 채 역병자와 함께 두었다가 이틀 후에 발견했습니다. 발견된 뒤에는 바르셀로나 전 시민이 울면서 운구 행렬을 따라가 도시 전체의 교통이 마비될 정도였습니다. **바르셀로나**라고 하면 우리는 피카소를 생각하지만, 실제로 가 보면 가우디의 도시입니다. 모든 사람이 가우디의 삶과 건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바르셀로나 올림픽 때 내세운 것 또한 가우디의 작품이었습니다.

(다) 나는 교산 허균(許筠)을 찾아보고 오리라던 강릉행을 서둘러 거두고 서울로 돌아온 다음 오늘 새벽 일찍이 난설헌 허초희(許楚姬)의 무덤을 찾아 나섰습니다. 경기도 광주군 초월면 **지월리**. 자옥한 새벽안개 속을 물어 물어 찾아왔습니다. …(중략)… 당신이 힘들게 얻어낸 결론이 ‘여성에게 가해지는 차별과 억압의 철폐는 사회의 근본적인 모순을 드러내는 일과 직접 맞물려 있다’는 것이라면, 그리고 한 시대의 정점에 오르는 성취가 아니라, 그 시대의 아픔에 얼마만큼 다가서고 있는가 하는 것이 그의 생애를 읽는 기준이 되어야 한다면 당신은 이곳 지월리에도 와야 합니다. 사랑했던 오라버니의 유배와 죽음, 그리고 존경했던 스승 이달(李達)의 좌절, 동시대의 불행한 여성에 대하여 키워온 그녀의 연민과 애정, 남편의 방탕과 학대, 그리고 연이은 어린 남매의 죽음, 스물일곱의 짧은 삶으로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육중한 것이었습니다.

(뒷면에 계속)

(라) 인간은 무엇보다도 먼저 자신의 상처에 집중하지만 인문학의 성찰력은 우리의 시선을 자신에게로만 향하게 두지 않는다. 인문학은 자신의 입장을 상대화하고 타인의 입장에 서서 볼 수 있는 공감력을 제공한다. 타인만 자신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 역시 타인에게 고통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원하지 않지만 서로 상처와 고통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통찰하게 한다. 그리하여 인문학은 고통이 자신만의 것이 아님을, 인간 보편의 조건임을 인식하도록 한다. 이렇듯 인문학은 인식의 확장을 가져온다. 자신만의 관점과 시선에 갇히지 않도록 함으로써 자기 자신, 타인, 세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준다. 그리하여 자기 자신과의 관계, 타인과의 관계, 세계와의 관계를 왜곡되지 않게 정립할 수 있도록 돕는데, 이 과정에서 갈등 상황이 줄어들거나 해소된다.

1-1. 제시문 (가)의 베이징, (나)의 바르셀로나, (다)의 지월리, 이 세 장소가 나타내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하시오.
(250자±20자) [15점]

1-2. 제시문 (가) ~ (다) 가운데 제시문 (라)의 관점이 가장 잘 드러난 것을 선택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250자±20자) [15점]

【문제 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정치는 모든 수준의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발생하는 권력 현상이다. 정치는 사회생활 과정에서 자원의 생산, 분배, 소비와 관계하며 본질적으로 정치는 권력인 것이다. 다시 말해 정치는 어떤 수단을 사용하여 갈망하였던 결과를 달성하는 능력이다. 인간의 욕구와 욕망은 무한한데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사회의 자원은 본질적으로 희소하고 제한적이다. 따라서 정치는 희소자원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투쟁으로, 권력이라는 수단을 통해 이 희소자원을 둘러싼 투쟁이 일어나는 것이다.

(나) 에너지가 물리학의 기본적인 개념인 것처럼 권력은 사회과학의 기본적인 개념이다. 인간 사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권력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 권력은 오랫동안 사람들의 관심 대상이었다. 플라톤은 권력이란 어떤 것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며, 또는 영향을 받거나 변화될 수도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했다. 막스 베버는 권력을 사회적 관계 내에 있는 한 행위자가 어떤 저항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의 의사를 실현시킬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가능성이라고 이해했다. 즉 권력이란 타인의 힘을 거슬러 자신의 의사를 관철하는 능력인 것이다.

(다) 루크스(Lukes S.)는 1974년 그의 저서 *Power: A Radical View*에서 권력을 3가지 차원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베버가 정의한 권력은 1차원적인 권력으로 눈에 보이는 권력이다. 그런데 루크스는 권력의 개념에는 갈등 상황에서 행위자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지를 실현할 수 있는 능력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능력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누군가가 원하는 특정한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가’ 라는 질문과 함께 ‘우리가 원하는 중요한 문제를 왜 다루지 않는가’ 에도 초점을 두고자하는 것이다. 이를 무의사결정(non-decision making)이라 하는데, 루크스는 이를 2차원적인 권력이라 하였다. 무의사결정에 따르면 권력은 특정한 문제가 논의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그것을 정치적 의제에서 배제시키는 능력을 의미한다. 루크스의 3차원적 권력은 행위자들 간에 명백한 갈등이 있지만, 그 갈등이 정치적 의제로 부각되는 것을 의식의 차원에서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권력을 행사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우리의 이익에 대하여 ‘잘못된 믿음’ 을 심어줌으로써 누군가의 의도대로 우리가 행동하게 만드는 것이다. 어두육미(魚頭肉尾)라는 말이 있다. 주인이 하인에게 먹을 수 없는 부분을 주면서 한 말인데, 피지배계층인 하인은 주인의 말을 진정으로 믿고 생선 대가리와 고기 꼬리를 맛있게 먹는다면, 주인은 하인에게 잘못된 믿음을 심어줌으로써 하인에게 3차원적 권력을 행사한 것이다.

(다음 장에 계속)

(라) 대통령 선거가 막바지로 가면서 포털 모바일 뉴스는 갈등과 대결 뉴스로 물들고 있다. ‘○○○감시연대’는 지난 4월 24일부터 30일까지 포털 모바일 메인과 대선 페이지 및 정치·사회섹션에 배열된 뉴스 39,967건을 수집해 이중 대선 관련 뉴스 1,236건을 모니터링 했다. 모니터링 결과 네이버와 다음의 대선 관련 뉴스 중 갈등·대결 뉴스 비중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4월 3주차 29.0%에서 4주차 57.8%로 급증했다. 네이버 역시 3주차 27.3%에서 4주차 48.0%로 늘었다. 다음은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했는데, 대선 후반기로 갈수록 갈등·대결 뉴스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정책 뉴스 비중은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네이버는 4월 3주차 동안 정책 정보를 101건(18.4%) 제공했고, 다음은 65건(9.4%)을 제공했다. 다음이 네이버에 비해 정책 정보 제공 뉴스 비율이 조금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감시연대는 4월 17일부터 28일까지 네이버와 다음 모바일의 대선 관련 뉴스를 모니터링하면서 글자 수 축약을 넘어서는 우려할 만한 제목 수정 사례를 발견했다. 네이버는 4월 16일 C 후보의 ‘유치원 논란’ 이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한 뉴스 <유치원 논란에 등 돌린 맘心...A·B 후보 여성 지지율 격차 13%p>에서 ‘지지율 격차 13%p’라는 표현을 ‘C 후보 지지율 하락세로 돌아서’로 수정했다. 같은 날 <A 후보 42.6% C 후보 35.6%...양강 구도 흔들>이라는 뉴스 제목 중 ‘양강 구도 흔들’을 ‘대선 판세 요동’으로 수정했다. 다음에서도 제목 수정을 한 뉴스를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은 16일 <첫날 동선 보면, 선거운동 방향 알 수 있다>를 <A 후보는 통합, C 후보는 국민, B 후보·D 후보는 기적>으로 수정해서 동일한 기사인지조차 확인하기 어려울 정도로 제목을 수정했다.

2-1. 제시문 (가)를 바탕으로 권력이 제시문 (나)와 (다)에서 어떻게 행사되는지 설명하시오. (200자±20자) [15점]

2-2. 제시문 (라)에 나타난 현상을 제시문 (다)의 권력 개념을 활용하여 설명하시오. (300자±20자) [20점]

【문제 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여성혐오라는 말은 영어 ‘미소지니(misogyny)’의 번역어다. 부정적 의미의 접두사 ‘mis-’와 여성을 뜻하는 ‘gyn’의 합성어다. 여성 외에도 외국인, 동성애자, 나이든 이들, 공산주의자가 혐오의 주요 대상이 되어 왔다. 외국인에 대한 제노포비아, 동성애자에 대한 호모포비아가 그것이다. …(중략)… 여성혐오는 분명한 현상이고 정확한 말이다. 문제는 미소지니가 여성혐오로 번역되면서 본뜻이 왜곡되는 한국의 남성 중심 문화다. 여성들은 난관에 부딪혔다. 일단, 사소한 문제로는 혐오(嫌惡)라는 단어의 어감이 너무 강력해서(‘악’이라고도 읽지 않는가) 남성들로 하여금 ‘혐오’에 맞서 방어해야 한다는 적반하장 태도를 갖게 했다. …(중략)… 특히 ‘여성혐오’의 가장 큰 문제점은 남성혐오라는 대칭적 용어의 발단이 되었다는 것이다. ‘여혐 대 남혐’이라는 이분법이 그것이다. 이분법은 A와 not A라는 타자화의 문법으로, 평등으로 여겨지기 쉬운 속임수다. 미소지니라면 다르지 않았을까. 미소지니는 대립 구도를 만들어내기 힘든 단어다. 그대로 수용될 수 있다. 남성 위주 사회는 너무 오래된 역사라서 여성에 대한 비하와 차별은 남녀 모두에게 자연스럽게 느껴진다. 이를 자각하고 여성이 자신의 이중 노동, 여성에 대한 폭력을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 혐오인가?

(나) 여전히 바뀌지 않은 남성중심 사회에서 우리가 어머니에게, 아내에게, 직장의 여성 동료에게, 길거리에서 만나는 여성에게, 심지어는 만나지도 못할 여자들에게 특별히 기대하는 ‘여자다움’이 사실상 모두 ‘여성혐오’에 해당한다. …(중략)… 문학사는 작가들의 이런 태도를 총괄해서 ‘미소지니’라고 불렀으며, 그 말을 한자 문화권에서 ‘여성혐오’라고 옮겨서 잘못될 것은 없다. 그러나 번역 이론가들이 오랫동안 고민해 온 주제 하나가 이 번역어와도 연결되어 있다.

시몬 드 보부아르가 『제2의 성』을 발표한 것은 1949년이다. 보부아르는 이 책에서 당시 유행하던 실존주의 철학에 바탕을 두고 여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는, 이제는 상식적이 되어버린 저 유명한 말을 했다. 여성을 ‘여성답게’ 살도록 유도하고 훈련시키는 것은 자연 질서이기보다 사회의 제도이고 관습이고 교육이다. 그도 역시 문학의 여성 차별적 작품들을 분석하고 비판한다. 그러나 그가 비판하는 것은 보들레르나 공쿠르 형제처럼 여성을 멸시하거나 기피했던 작가들에 그치지 않는다. 그의 비판은 다양하다. …(중략)… 보부아르가 페미니즘의 관점에서 유일하게 높이 평가한 작가는 스탕달이다. 그는 영원한

(뒷면에 계속)

여인상 같은 것을 말한 적이 없다. 그는 여자에게 현실을 돌려주었다. 여자가 교육을 덜 받을 때, 다시 말해서 여자다워야 한다는 모든 사회적 요청에 덜 노출될 때, 여자는 모든 편견과 모든 부르주아적 가치로부터 자유로워진다고 말했다. 스탕달은 여자를 한 명의 ‘사람’으로 여겼다. 다른 작가들을 스탕달과 비교할 때 그들이 어떻게 여자들을 삶에서 소외시켜 종속적 존재로 만들었는지 명백하게 드러난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에 ‘미소지니’라는 말은 저 작가들이 여자를 현실에서 소외시킨 모든 태도와 방법과 의식을 함축하게 된다. 그 의미의 폭이 이렇게 확대된다.

이 낱말은 이제 ‘여성혐오’라는 본디의 뜻보다도, 여자를 남성입문의 발판으로, 구원의 여인상으로, 다른 세계의 안내자로 특화하여 여자를 삶에서 배제시키려는 모든 환상과 편견을 더 많이 의미하게 되지만, 그 말을 어느 시점에 한 번 번역한 말인 ‘여성혐오’는 내내 그 말 그대로 남는다. 모든 낱말은 그 말로 이루어진 사유와 함께, 그 말로 매개되는 삶과 함께 그 의미의 폭과 깊이가 달라지지만 그 번역어도 반드시 그 본래의 말과 같은 방향으로 변화를 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비롯되는 불일치는 단순한 번역 일화로 그치지 않고 자주 사회적 오해로 발전한다. ‘여성혐오’라는 번역어의 운명이 그와 같다.

(다) ‘딸바보’ 유행과 여성혐오의 범람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는 것은 이 둘이 근본적으로 여성의 성별화와 대상화에 기대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회구조를 어떻게 넘어설 수 있는가. 궁극적으로 이는 남성연대의 탈구축으로 이어져야 한다. 세즈윅은 남성의 우정, 멘토십, 자격, 라이벌 구도 등 남성들 사이의 관계를 ‘동성사회적 욕망(homosocial desire)’으로 명명한다. 이때 남성들 사이의 연대를 강화하기 위해 여성이 교환되고, 이성이 정상성으로 명명된다. 때문에 남성연대가 강할수록 동성애혐오와 여성혐오는 강력해진다. 우에노 치즈코는 세즈윅의 분석을 바탕으로 남성연대의 동성 사회성은 여성혐오에 의해 성립되고 동성애혐오에 의해 유지된다고 지적한다. 여성혐오의 궁극적 원인이 남성 사이의 연대를 위해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치환하고, 여성을 객체화함으로써 상대를 주체로 인정하는 구조에 있다는 것이다. 서로를 남성으로 인정한 이들의 연대는 남성이 되지 못한 이들과 여성을 배제하고 차별화함으로써 성립한다. 역사적으로 유래가 깊은 마녀와 성녀의 이분법과 같은 여성혐오는 동성사회성이 여성의 차별뿐만 아니라 경계선의 관리와 끊임없는 배제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라) 평범한 학교였다. 운동장이 좁아 대각선으로 100미터 달리기를 해야 하고, 건물 벽에서 부스러기가 시도 때도 없이 떨어지는, 작고 낡은 공립 중학교. 복장 규정이 좀 빡빡했는데, 유난히 여학생들에게 엄격했다. 김은영 씨의 말로는 남녀공학이 되면서 더 심해졌다고 한다. 교복 치마는 무릎을 덮어야 했고, 엉덩이와 허벅지의 굴곡이 드러나지 않아야 했다. 얇고 하얀 하복 셔츠는 속이 많이 비쳤는데, 셔츠 안에 목둘레와 진동이 둥그런 전형적인 흰색 러닝셔츠를 반드시 입어야 했다. 끈나시도 안 됐고, 면티도 안 됐고, 색이 있거나 레이스가 있는 것도 안 됐고, 브래지어만 입는 것은 절대절대 안 됐다. 또 여름에는 살색 스타킹에 흰 양말을 신어야 했고, 겨울에는 학생용 검정 스타킹만 신어야 했다. 비치는 검정 스타킹도 안 됐고, 양말을 덧신는 것도 안 됐다. 운동화는 신을 수 없고 구두만 허용됐다. 한겨울에 양말도 없이 스타킹에 구두를 신고 다니려면 발이 너무 시려워 딱 울고 싶었다.

남학생들의 경우, 바지폭을 너무 넓거나 좁게 수선하는 것은 안 되지만 그 이외에는 대체로 눈감아 주었다. 하복 안에 러닝셔츠도 입고, 흰 면티도 입고, 종종 회색이나 검정색 티를 입고 다니는 아이들도 있었다. 그러다가 더우면 단추도 몇 개 열었고,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에는 티셔츠만 입고 다니기도 했다. 구두도, 운동화도, 축구화도, 조깅화도 신을 수 있었다.

3-1. 제시문 (가)와 (나)에서 미소지니(misogyny)를 ‘여성혐오’로 번역할 때 드러나는 문제점을 서술하시오. (250자±20자) [15점]

3-2. 제시문 (가), (나), (다)에서 핵심어를 찾아 제시문 (라)에서 복장 규정이 강제되는 원인을 서술하시오. (350자±20자) [20점]

* 주의 사항: 문제지, 연습지, 답안지에 필요한 인적 사항을 기입하였는지 확인하시오.